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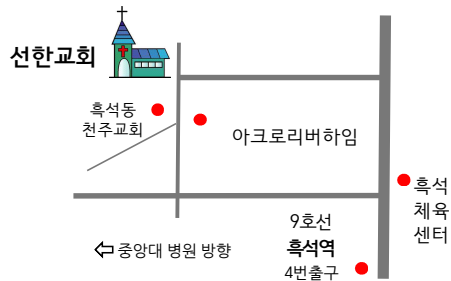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믿음의 씨앗 (유아부)	오전 11:00 여호수아회 오후 2:00
	3부(청년) 오후 1:00	선한 꿈 (유초등부)	오전 11:00 요셉회 오후 2: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5째주 셀가족모임)	파워틴 (청소년부)	오전 10:00 루디아회 오후 1:00
	수요일 저녁 7:30	청년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비전워십	오전 10: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30		오전 10:0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셀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춘배	국내선교사	오인숙, 한배선
	교육목사 정용준	협력교회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전임전도사 윤영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호남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상돈, 김대희	해외협력선교사	김만조, 이금춘, 조나단
	박희태, 유신웅		
	조윤익		
장 로	편도선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석규
	박영근, 윤호중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계승, 이태수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고후 9:6)
whoever sows generously will also reap generously

실 천 사 항 물질 심기 기도 심기 복음 심기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음행하는 자와 혹은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히 12:16)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3부 오후 1:00 인도: 임춘배 목사 인도: 정용준 목사	
1, 2부	
기원	인도자
찬양과경배	8장 (통일찬송가 9장)
교독문	교독문 94번 (새해 2)
찬양과경배	292장 (통일찬송가 415장)
기도	이태수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성경봉독	히브리서 12장 12~17절
설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따르라 (임춘배 목사)
헌금	헌금송 : 비전트립팀
환영 및 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하나님의 부르심
축도	임춘배 목사
성도의교제	다함께

주일후		
찬양	Joy And 찬양팀	
기도	김명옥 권사	
말씀	이사야 18장 1~7절	
설교	구스에 관한 예언 (임춘배 목사)	
광고 및 축도	임춘배 목사	

수요예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시편 78편 1~72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안내	1) 주일 11시 예배는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2) 오늘 점심 봉사는 요셉회입니다. 3) 교회헌금계좌: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4) 주차 안내: 중앙대 정문 주차장 이용 (네 시간 주차: 2천원권 / 네 시간 이상 주차: 5천원권). * 주차권은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비전트립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비전트립을 위한 헌금과 기도가 있습니다.
3. 제직회	오늘 2부 예배 후 제직회가 있습니다.
4. 사무처리회	28일(주일) 2부 예배 후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5. 헌신예배	28일(주일) 오후 예배는 제직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6.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	1월 14일, 21일, 28일, 2월 4일 (4주간) * 주제: 노아 메이커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는 삶이 되도록.
----------------------	---

가정예배		지금 내가 살아나는 믿음
찬양	'어려운 일 당할 때' 543장(통342)	
본문	요한복음 11장 17~29절	
말씀	하나님은 부 존귀 영광 권위 등 가진 것이 많으십니다. 그중 영원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산 믿음입니다. 첫째로 산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타까운 가정을 보여줍니다. 오라비가 부모 역할을 하던 부모 없는 가정인데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자 사람들은 산 믿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산 것처럼 우리 가정과 사업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비결은 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렀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삶의 현장에 이미 와 계시고 우리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산 믿음입니다. 둘째로 산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 것을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부활 때 살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은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어지는 역사가 기적입니다. 아는 신앙이 믿는 신앙으로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소유하게 됩니다. 셋째로 산 믿음은 예수님을 옹호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하며 울자 예수님께서도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며 민망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이 마리아가 바로 향유욕함을 깨뜨려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만한 가정입니다. 마리아가 소중한 옥함을 깨뜨려 주님께 헌신한 것이 오라비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보시고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소유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사로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산 믿음을 드릴 때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산 믿음을 갖도록 기도합시다.	

은혜의 말씀	
제 목	모든 사람과 더불어 따르라 (히 12:12~17)
서 론	새해에는 선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본 론	1. 새 언약의 공동체 (1) 자신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12절) (2) 공동체 안의 약한 지체를 위해 곧을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13절) (3)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14절) (4)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 ①쓴뿌리가 나서 더럽히지 않도록(15절) ②에서와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16절) 2. 교훈 (1)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2) 함께 달려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3) 에서처럼 작은 어려움 때문에 귀한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 않는가?
결 론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와 함께 상급을 받을 때까지 힘차게 달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2부 예배 기도	이태수 장로	윤호중 장로
2부 예배 헌금	오세영 집사	박미정 집사
오후 예배 기도	김명옥 권사	김점분 권사
주 방 봉 사	요셉회	마리아회

매일 Q.T.		불의에 맞선 의로운 죽음	날짜 : 1월 15일 월요일
찬양	찬송가 240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본문	마가복음 6:14~29		
말씀요약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왕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여깁니다. 전에 헤롯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한 요한을 투옥했지만, 그가 의로운 사람임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생일 잔치 때 춤을 춘 헤로디아 딸의 요청과 자신이 한 맹세로 인해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묵상질문 1	헤롯을 책망한 침례 요한 6:14~20 헤롯의 불의에 대해 침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공동체 안팎에서 지도자의 불의를 인지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묵상질문 2	침례 요한의 죽음 6:21~29 헤롯의 경솔한 맹세는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내가 멈추지 못하는 죄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절묵상	마가복음 6장 25~26절 진리에 대한 무감각과 탐욕은 인생을 일그러지게 합니다. 무엇이든 구하라고 말한 헤롯에게 헤로디아의 딸은 침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자신이 한 맹세와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헤롯은 그 안에 갇혀 진리와 자유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와 달리 헛된 욕심과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 위에 설 때, 인생은 아름답아집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말씀은 달게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할 의지가 없었던 헤롯의 어리석음이 제게는 없는지요. 하나님 말씀보다 제 자존심이 앞서지 않게 살피고, 죄에 대해 책망하거나 책망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진실하고 신중한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개인 성경 공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찬양과 기도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새 449) 주님은 신실하고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1777년 겨울, 조지 워싱턴과 장병들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혹독한 ‘밸리 포지의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병들은 식량과 군수품 부족 및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고,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지 워싱턴은 장병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직면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식량과 필요한 물품을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인디언들과 협력 관계를 맺었고,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위생 조치를 강화하고 의료진을 조직하는 등 병사들을 돌보는데 전심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장병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사기를 높였습니다. 독립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장병들의 헌신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싸우십시오!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전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군인들은 워싱턴의 세세한 돌봄과 그가 보여 준 리더십으로 힘든 겨울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이 같은 대처는 장병들의 생존과 군기 유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밸리 포지의 추운 겨울을 견뎌 내고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어 미국 독립전쟁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장병들의 필요를 알고 적절하게 대처한 워싱턴은 좋은 리더십의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적절한 도움으로 위기를 견뎌 낸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말씀 나누기	마가복음 6:45~56
묵상포인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로 교제하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십니다. 이를 통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고, 기도의 큰 유익을 교훈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아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는 우리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힘겹게 노를 젓듯 우리도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씁니다. 물 위로 걸어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간구하면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찰과 묵상	오병이어 이적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45~46절)
적용하기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나는 어떻게 회복의 시간을 갖나요? 내게 필요한 안식을 얻고 재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기	주님! 바쁘고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게 어떤 필요와 문제가 있든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며, 저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정결한 행실의 근원, 정결한 내면	날짜 : 1월 19일 금요일
찬양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본문	마가복음 7:14~23		
말씀요약	예수님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하십니다. 음식물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에 깨끗합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입니다.		
묵상질문 1	사람의 안과 밖 7:14~19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히는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하셨나요? 음식물의 청결은 강조하면서 마음의 정결을 신경 쓰지 않는 삶은 어떠할까요?		
묵상질문 2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의 목록 7:20~23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 목록은 무엇인가요? 나를 더럽히는 내면의 악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버릴까요?		
한절묵상	마가복음 7장 15~16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욕망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죄의 성향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근원에 깊이 숨겨져 있어서 쉽게 제거할 수 없습니다. 삶의 전반에 뒤엉켜 있는 악과 그로 인한 고통의 고리를 끊으려면, 인간의 폐부를 살피시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며 마음에서부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내게 하십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의 근원이 제 마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삶의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는 악의 씨앗을 살피게 하시고,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 악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작은 죄도 멀리하고 경계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매일 Q.T.		참된 목자가 베푸신 광야의 식탁	날짜 : 1월 16일 화요일
찬양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본문	마가복음 6:30~44		
말씀요약	예수님이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한적한 곳으로 가시지만,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겨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날이 저물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남자만 헤아려 5천 명이 먹고 남은 것을 열두 바구니에 거둡니다.		
묵상질문 1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 6:30~34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은 무리를 어떻게 여기셨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이들에게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묵상질문 2	오병이어 이적 6:35~44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 줄 지체는 누구인가요?		
한절묵상	마가복음 6장 41~43절 사람들에게 나누고 열두 바구니에 남은 양식은 예수님의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보여 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버려지거나 낭비되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도 남습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달려갈 의지와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아 나누는 작은 떡 한 조각은 이 시대의 결핍과 균열을 메우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채워 주시는 주님을 좇아 살게 하소서. 암담한 현실에서도 눈을 들어 기도함으로, 삶을 기적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일 Q.T.		물 위를 걸으신 권능, 풍성한 긍휼의 치유 이적	날짜 : 1월 17일 수요일
찬양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본문	마가복음 6:45~56		
말씀요약	예수님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고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바람 때문에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칩니다. 많은 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습니다.		
묵상질문 1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6:45~52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연상했나요? 내가 두려움으로 낙심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관심과 사랑은 어떠한가요?		
묵상질문 2	게네사렛에서의 치유 6:53~56 예수님 앞에 병자들을 데려오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수고와 열정은 어떠했나요? 한 사람의 치유를 위해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고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마가복음 6장 51~52절 믿음의 실체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드러납니다. 인생에서 깊은 동굴이나 긴 터널을 경험할 때는 주님과과의 결속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 방향성을 잃고, 밀려오는 파도에 휩쓸려 휘청거리곤 합니다. 삶의 중심을 바로잡는 길은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깊이 의지할 때, 인생의 안전과 평안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능력을 끝없이 맛보고 될 것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어떤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 시선이 눈 앞에 닥친 삶의 고난과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달아, 삶의 모든 순간에 하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매일 Q.T.		전통과 위선이 아닌 사랑의 계명으로	날짜 : 1월 18일 목요일
찬양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본문	마가복음 7:1~13		
말씀요약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자,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아무 것도 드리지 않는 등,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자들입니다.		
묵상질문 1	바리새인들과의 정결법 논쟁 7:1~8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에 집착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외적 행위로 그의 신앙과 경건을 가능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묵상질문 2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 7:9~13 부모 공경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악용한 전통은 무엇인가요?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기 위해 세울 원칙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마가복음 7장 13절 전통을 수호하려는 인간적 노력이 본래 정신과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지키는 가치들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려면, 외적, 형식에 포장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는 용기와 통찰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을 듣는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과 확신을 주는가?” 이 물음에 “예.”라고 답할 때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하나님, 늘 그렇게 했다는 전통과 관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제게 익숙한 방식을 벗어 버리고, 절대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입술의 순종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